

#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

## KATECH Insight

- ◆ '21.3분기 누적 기준 글로벌 전기차(BEV) 시장에서 한국은 내수 판매량 세계 7위, 완성차기업 세계 5위에 올랐으며, 전기차 산업의 중핵인 배터리·부품 기업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행보
- ◆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내 향후 한국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안정화, 배터리 신뢰성 확보,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이 필요

### ■ 한국은 '21년 3분기까지 전기차(BEV) 7.1만대를 판매하여 연간 내수 판매량 세계 7위

- (한국) '19~'20년 연간 내수 판매량에서 세계 8위였던 한국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지원 정책과 소비자 인식 개선에 힘입어 전기차 판매량·판매비율 모두 증가
  - (판매 비율) '21년 국내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의 비율은 5.5%에 달하며, 이는 유럽을 제외한 국가 중 중국(9.4%) 다음으로 높고 미국(2.3%)의 2배를 넘는 수치
- (글로벌) 국가별로 중국(176만대), 미국(27만대), 독일(24만대) 순으로 판매되며 최초로 3백만대를 달성하였고, 순위 내 국가들 중 노르웨이(52.5%), 독일(10.9%) 등이 높은 판매 비율을 보임

### ■ 국가별 전기차(BEV) 판매량 (단위:대) ■

국가	2019	비중 (%)	국가	2020	비중 (%)	국가	'20.3Q누적	'21.3Q누적	비중 (%)	동기비 성장률			
1	중국	1,035,752	4.0	1	중국	1,054,169	4.2	1	중국	544,945	1,756,319	9.4	222%
2	미국	246,996	1.4	2	미국	260,055	1.7	2	미국	175,467	272,554	2.3	55%
3	독일	66,818	1.7	3	독일	201,362	6.3	3	독일	101,369	243,892	10.9	141%
4	네덜란드	63,662	14.1	4	프랑스	119,767	5.7	4	영국	69,337	131,832	8.3	90%
5	노르웨이	62,301	32.8	5	영국	112,980	5.9	5	프랑스	76,138	114,836	7.0	51%
6	프랑스	51,013	1.9	6	노르웨이	79,847	44.1	6	노르웨이	50,057	84,428	52.5	69%
7	영국	41,225	1.5	7	네덜란드	75,055	21.0	7	한국	36,268	71,006	5.5	96%
8	한국	35,443	2.0	8	한국	46,909	2.5	8	이탈리아	18,599	49,065	3.8	164%
합계	1,775,828	2.0	합계	2,220,411	2.9	합계	1,248,718	3,012,579	5.1	141%			

\* 출처: SNE리서치('21.10월), Marklines

### ■ 현대차는 다양한 신모델 출시에 힘입어 글로벌 완성차기업 중 전기차 판매 5위

- (현대차그룹) 기존 모델인 '코나', '니로' 외에 '20년 '포터2 EV', '봉고 EV'를 출시한 데 이어 '21년에도 다양한 신형 모델을 선보이며 전기차 판매량 증대에 노력

\* 현대 '아이오닉5' 4월, 기아 'EV6' 8월, 제네시스 'G80e' 7월, 'GV60' 10월 출시

- (주요 완성차기업) 테슬라는 보급형 모델 판매를 확대하며 글로벌 판매 1위를 수성 중이고,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VW·스텔란티스가 전기차 판매량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

■ 완성차기업별 전기차(BEV) 판매량 (단위:대) ■

기업명		2019	기업명		2020	기업명		'20.3Q누적	'21.3Q누적	동기비 성장률
1	테슬라	376,862	1	테슬라	494,244	1	테슬라	323,689	625,624	93%
2	르노닛산	155,828	2	상해	235,425	2	상해	90,161	413,037	358%
3	BYD	150,200	3	VW	220,818	3	VW	114,639	287,852	151%
4	북경	130,226	4	르노닛산	189,264	4	BYD	65,875	189,751	188%
5	상해	99,072	5	현대차	145,609	5	현대차	95,757	159,558	67%
6	VW	83,870	6	BYD	122,778	6	스텔란티스	45,368	136,396	201%
7	현대차	81,059	7	스텔란티스	81,854	7	르노닛산	119,907	135,158	13%
8	지리	64,702	8	다임러	56,560	8	장성	22,950	84,744	269%
합계		1,775,828	합계		2,220,411	합계		1,248,718	3,012,579	141%

\* 출처: SNE리서치('21.10월)

■ 한국 배터리기업 3社は 공격적인 투자와 거래선 확대로 글로벌 선두권을 유지 중

- (LG에너지솔루션 3위→2위) 전기차 배터리 문제 관련 GM과의 리콜 합의 이후 공급 재개 및 공격적인 신규 투자로 상황 극복
- (SK이노베이션 11위→5위) 현대차와의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신형 강자로 급부상하였으며, 최근 포드와 함께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여 사업 확대 추진
- (삼성SDI 7위→8위) 판매량 성장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나 아우디, BMW, 볼보, 롤스로이스 등 유럽 프리미엄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입지 강화

■ 배터리기업별 전기차(BEV) 판매용량 (단위:MWh) ■

기업명		2019	기업명		2020	기업명		'20.3Q누적	'21.3Q누적	동기비 성장률
1	CATL	31,786	1	CATL	33,008	1	CATL	17,513	57,837	230%
2	파나소닉	27,804	2	LG에솔	31,502	2	LG에솔	17,622	42,152	139%
3	LG에솔	11,205	3	파나소닉	25,862	3	파나소닉	17,642	21,228	20%
4	BYD	10,312	4	BYD	9,000	4	BYD	4,647	12,760	175%
5	AESC	3,853	5	SK이노	5,783	5	SK이노	3,542	7,887	123%
6	Guoxuan	3,199	6	삼성SDI	4,575	6	CALB	1,686	5,569	230%
7	삼성SDI	2,910	7	AESC	3,847	7	Guoxuan	1,413	3,957	180%
8	Lishen	1,942	8	CALB	3,444	8	삼성SDI	2,926	3,607	23%
합계		107,699	합계		129,063	합계		73,861	168,846	129%

\* 출처: SNE리서치('21.10월)

■ 전장 사업으로 확대한 국내 부품기업들이 글로벌 100대 자동차부품기업에 신규 진입

\* 글로벌 미래차 전장 부품 사업 규모는 점차 확대 중으로 '15년 2,390억불, '20년 3,033억불이었으며, '24년에는 4,000억불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(Strategy Analytics)

- (한국) 미래차 전장 부품 사업을 하는 3개 기업(SL, 서연이화, 유라)이 신규로 진입하였으며, 순위 외의 다른 국내 기업들도 IT 계열사 통합, JV 및 M&A\*을 통해 전장 사업 확대 중

\* 올해 현대차는 현대오토에버(IT서비스), 현대엠엔소프트(내비게이션·정밀지도), 현대오토론(차량 S/W) 3개 계열사를 통합(4월)하고, LG전자는 마그나와 합작사 설립(7월) 및 이스라엘 車사이버 보안업체 '사이벨럼' 인수(9월)

- (세계) 한국·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는 100대 부품기업 수 및 총 매출액에서 정체·감소세이며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전장 사업으로 확대·전환 중

\* 100대 부품기업 중 미래차 전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수: `18년 46개, `19년 47개, `20년 48개

### ■ 국가별 100대 자동차부품기업 현황(단위:백만불) ■

구분		2018	2019	2020	'18 VS '20
일본	총매출	226,411	229,324	210,541	△3.6%
	기업수	23	24	23	-
	대표기업	Denso(2) Aisin(5) Yazaki(11) Sumitomo Electric(12) Panasonic(16) 등			
독일	총매출	230,569	215,215	196,793	△7.6%
	기업수	19	18	18	1 ↓
	대표기업	Bosch(1) ZF(3) Continental(6) BASF(13) Thyssenkrupp(22) Mahle(24) 등			
미국	총매출	122,945	118,393	104,506	△7.8%
	기업수	23	21	22	1 ↓
	대표기업	Lear(9) Adient(14) Tenneco(15) BorgWarner(23) Flex-N-Gate(28) 등			
한국	총매출	56,420	57,014	55,281	△1.0%
	기업수	6	8	9	3 ↑
	대표기업	현대모비스(7) 현대트랜시스(34) 현대위아(38) 한온시스템(39) 만도(50) SL(77, `19년 진입) 유라(78, `20년 진입) 서연이화(85, `19년 진입) 현대캐피코(89)			
프랑스	총매출	50,090	48,234	44,019	△6.3%
	기업수	3	3	3	-
	대표기업	Faurecia(8) Valeo(10) Plastic Omnium(25)			
캐나다	총매출	49,269	47,529	39,360	△10.6%
	기업수	4	4	4	-
	대표기업	Magna(4) Linamar(60) Martinrea Int.(73) Multimatic(96)			
중국	총매출	27,383	25,473	27,455	0.1%
	기업수	6	6	7	1 ↑
	대표기업	Yanfeng(17) BHAP(42) CITIC Dicastal(58) Minth(69) Wuling Ind.(81) Huizhou Desay SV(96, `20년 진입) 등			
기타*	총매출	91,847	87,346	67,355	△14.4%
	기업수	16	16	14	2 ↓
합계		854,934	828,528	745,310	△6.6%

\* 출처: Automotive News 2019, 2020, 2021 (합계: 순위에 있는 100대 기업의 총매출 기준, 기타: 스페인, 아일랜드, 인도, 영국, 스웨덴, 스위스, 멕시코, 홍콩, 브라질, 네덜란드, 이탈리아, 룩셈부르크 포함) ※ 파란색: 전장 사업 기업

### ■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내 향후 한국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안정화, 배터리 신뢰성 확보,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이 필요

- (완성차기업) 반도체 적기 수급이 자동차 판매량 증대로 직결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반도체 기술 내재화\* 성과가 시장에서 승패를 가를 전망

\* 도요타는 `20.4월 테스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합작사 'MIRISE'를 설립하였고, VW·현대차도 최근 내재화 의지를 표명

- (배터리기업) 거래선 확대와 더불어 장기적인 신뢰성을 담보하는 기술력과 문제 발생 시의 대응력이 성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
- (부품기업) 내연기관 부품 생태계에 포함된 많은 중소·중견 부품기업이 전기차 관련 분야로 사업을 확대·전환해야 한국 자동차의 높은 가격·품질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음